

## 아프리카 빈민속의 잃어버린 영혼들

- 이영수 선교사 / 2003. 3. 20 -

저는 한국어린이 교육선교회, 한국외향선교회에서 파송 받은 이영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93년 말레이시아에서 단기 선교사로 시작하여 94년 에는 수단에서 2년간, 그리고 최근에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현재 안식년 겸 재충전의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해에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기근 뉴스를 통해 보고 마음이 아팠고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에 저는 선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평생 자원봉사자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의 저의 실천적인 신앙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92년 첫 번째 아프리카 단기선교 여행을 통하여 봉사보다도 선교가 더 중요하고 값진 일임을 알게 되어 평생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단이 계기가 된 것은 20대 초반에 저의 가진 신앙의 경륜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주님의 재림을 한국에서보다는 선교지에서 맞는 일이 더 의미 있고 값진 것임을 생각하여 대학 공부보다는 돕겠다는 마음으로 평신도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 아프리카 단기 선교 여행에서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수단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은 참으로 준비되지 않은 저를 훈련시키는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몇 명의 젊은 이슬람 형제들을 깊게 사귀게 되어 그들을 전도하고 제자양육 훈련을 시켜 결국에는 그들의 결정으로 어느 날 밤에 나일강에서 현지 목사님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가족으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 이 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철웅성 같은 그들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됨을 볼 때 저의 신앙이나 영성 혹은 선교의 사명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는 샘이었습니다.

지난번 저와 저희 가족은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 내 도시 빈민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의 빈민촌은 마약과 에이즈 그리고 부족한 일자리로 인해 범죄가 늘 많은 곳입니다.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 별의 별 일들과 사건 사고가 늘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 장례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는데 결혼식은 전혀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지역의 주민들을 조사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 선교원을 시작하여 이후에 자리 잡히면 그것이 다시 주일학교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청소년 사역과 부모들의 전도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선교사님이 길러내신 신학교 졸업생이 저희들과 같이 교회 개척을 사역을 감당 해온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에 귀신들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귀신들렸다고 한국의 무당집이라고

할 수 있는 상고마 집에 가족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강간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출산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 몰라라하고 돌아보지 않아 그 충격으로 젊은 아가씨가 귀신들려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대면에서 그가 귀신들려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거니와 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선교사인 것을 스스로 위로하며 돌아서고 모른 척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동안 계속 그 자매의 고통과 울부짖는 불쌍한 모습이 계속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당집에 매일 찾아가 기도해주고 경황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주님이 치유 해 주실 거라는 것은 믿었지만 언제인지 확신 할 수 없어 그 믿음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성을 다해 눈높이를 맞추어서 대해주고 따뜻하게 해줌과 동시에 동역자인 현지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 함께 기도를 시작하기를 3주가 되었을 때 그녀는 깨끗이 치유되었고 새롭게 변화되어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 놀라운 사실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처음에는 저도 잘 인정하지 못했고 교회 교우들도 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자기가 고통 중에 출산한 갓난아기도 잘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 시골로 다시 돌아가 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다 할 것 같은 선교지의 사역들이 초임으로 들어가는 선교사에게는 멋진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미루어지는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삶 그 자체’ 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져있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눈 여겨 보고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어떠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 다르고 속 다른 삶을 살기에는 선교지가 한국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선교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지에 있던 선교지에 가지 않은 그 차이를 덜 느끼거나 혹은 선교지에 가서 문화적인 충격에서 덜 충격 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 신용카드 사회가 된 한국에서 카드를 하나 만들려니 그렇게 쉽게 만드는 것을 우리 선교사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 보니 유명한 보험회사에서는 생명보험 가입도 힘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세 아이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찾은 고국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사정에 마음은 아파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장난감 같은 것을 원할 때 마다 어린 것들에게 절제를 요구하고 늘 긴 설명을 하면서도 이해를 받아주는 자녀들 앞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 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렵니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선교사의 연륜이 오래 되면 될 수록 영성이나 소명이 더욱 성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그리고 평생 믿음의 굴곡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믿음의 굴곡이 덜 심한 영성을 준비하십시오.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